http://doi.org/10.34227/tjocc.2023..29.273

전국 산촌 지명 연구*

김주미**, 민지애***, 장주연****, 유리화*****

국문초록

산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촌의 자연적인 특성에 기반한 경관적·문화적·생태적 가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촌은 주로 산을 중심으로 타 공간이나 지역과 차별화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산촌의 지명을 통해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명은 지형, 지물, 환경 등과 연관되어 명명되기 때문에 명명유연성(命名有緣性)의 특징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기본법」 상 산촌의 정의에 해당되는 466개 읍·면의 산촌 지명을 분석하였다. 산촌의 지명소를 통해 자연지명과 인문지명,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 산촌 지명 유형 분류 기준을 구성하여 전부지명소를 분석하고, 대표 지역문화콘텐츠인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산촌 지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국의 산촌 466개 읍·면 중 자연환경과 연관된 지명은 총 341개(7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자연지명 중 산 지명에 해당하는 지역이 119개(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치지명이 103개(22.1%)로 많았다. 인문지명은 68개(14.6%)였으며, 산촌의 인문지명들은 산과 관련된 자연지리적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산촌 지명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살펴본 결과, 총 43개의 지역축제가 있었으며, 그중 산촌 지명과 관계된 지역축제는 14개이었다. 산촌 지명은 산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산촌 고유의 정체성을 특화하고자 할 때, 지명과 지명의 문화콘텐츠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주제어: 산촌, 지명, 산림문화, 전부지명소, 자연지명, 행정지명

---

* 이 연구는 2023년도 한국산림과학회 국제학술대회(8.29)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제1저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박사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Forest Policy and Economic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석사연구원(Master Researcher, Forest Policy and Economic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연구사(Research Scientist, Forest Policy and Economic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 교신저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연구관(Senior Scientist, Forest Policy and Economic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접수일(2023년 10월 25일), 수정일(2023년 12월 11일), 게재 확정일(2023년 12월 11일)

I. 서론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과거부터 산지와 관련된 다양한 지명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산을 배경으로 한 마을의 형성, 산에 대한 신앙 등 의식주부터 경제활동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은 많은 지명의 생성 원인이 되었으며, 한국지명 한자어 통계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지명어이다.[1)]

일반적으로 산속에 있는 마을 또는 산에 둘러싸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산촌이라고 하며, 산촌을 산간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촌락으로 산지촌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주로 산을 중심으로 타 공간이나 지역과 차별화된 입지적 특성이 있다. 산림청은 산촌의 공간적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 「산림기본법」에서 산촌의 정의와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지명은 일정한 지리적 대상과 범위를 지칭하면서 다른 대상과 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2)] 그렇다면 산촌 지명에서 산이 가진 지리·지형적, 자연환경적 요소 등을 내포하여 다른 지역과 구별되어 명명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한편, 산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촌의 자연적인 특성에 기반한 경관적·문화적·생태적 가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촌은 산림 생태계의 보전과 공익기능 증진, 전통문화 유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3)] 지역에서도 지역의 문화를 보전하며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지명을 활용하여 문화행사, 지역축제 등 다양

---

1) 임종옥, 「남해군 자연마을 지명 유래와 그 분포의 특성」,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5쪽.

2) 김순배·김영훈,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제2호), 대한지리학회, 2010, 216쪽.

3) 민경택, 「산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조사」, 『산림경제연구』 제24권(제1호), 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16쪽.

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산림문화 정립과 확산을 위해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으로 산림문화를 정의하며, 산림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촌에서도 산림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산림자원을 지명과 연계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중 충남 보령시 성주면의 '성주산 단풍축제',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의 '속리산 신화여행 축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의 '김삿갓 문화제', 경남 하동군 화개면의 '화개장터 벚꽃 축제' 등과 같이 지명과 산림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축제명을 명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명이 그 자체로서 언어적 요소임과 동시에 지리적 현상이자 하나의 문화적 요소이기 때문이다.[4] 지명은 인간에 의한 환경지각의 소산으로 장소성과 지역성의 언어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정 지역의 지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문화콘텐츠로 인식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지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 공간을 구성하고 그 지역 고유문화와 가치를 담고 있는 지명을 통해 산촌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지명 형성과 산촌

지명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나 특수한 여러 현상 중 어느 하나의 특징을 대표성을 가진 단어 또는 글자로 표현한 것으로 지형, 지물, 환경 등과 연관되어 명명되기 때문에 명명유연성(命名有緣性)의 특징을

---

4) 김순배·김영훈,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제2호), 대한지리학회, 2010, 202쪽.

5) 김창환·양준혁,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사라진 마을과 지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1권(제1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21, 139쪽.

갖는다.[6] 지명 유래는 산지, 하천, 동·식물, 해안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종교, 교통, 경제·산업, 인물 등과 같은 인문환경에 대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지명은 그 땅의 주체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생성, 변천, 소멸의 길을 겪는다.[7] 한국의 지명은 행정구역의 변천과 더불어 여러 차례 개편되었으며 그 변화는 한결같지 않으며, 고구려 시대의 지명이 신라시대에 국내의 행정구역을 당나라식으로 개정하면서 지명도 모두 변경되었다.[8]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일컫는 이름인 지명은 동일 부류의 다른 공간과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명은 특정 지점을 찾아가는 자연지리적 위치 개념을 넘어 역사와 문화, 철학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인문학적 세계관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 지명이 지닌 지식과 정보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9] 지명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사회·인문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내포한다. 이에 지명어의 소재를 분석하여 그 지역의 생성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지명어의 소재를 '지명소(地名素)'라고 하며, 지명소는 지명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전부지명소와 후부지명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전부와 후부로 구성한 지명 형성을 1차 지명이며, 기본지명이라고 한다.[10] 기본지명은 전부지명소와 후부지명소 등 둘 이상의 지명소가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산을 구별하기 위해 지리산, 백두산, 한라산 등으로 명명하며 이때 피수식어 위치인 후부의 '산'은 지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수식어에 위치한 전부의 '지리', '백두', '한라'는 전부지명 형성

---

6) 김창환·양준혁, 「북강원도의 지명에 관한 연구 –행정도·리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3권(제2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23, 116쪽.

7)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표준화 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2005, i쪽.

8) 이상원, 「한국의 산 정보와 지명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7쪽.

9) 임재해, 「설화의 미디어 기능과 지명전설의 인문지리 정보」, 『韓民族語文學』 제69권, 한민족어문학회, 2014, 78쪽.

10) 김정태, 「지명 형성의 한 유형에 대하여」, 『地名學』 제26권, 한국지명학회, 2017, 34쪽.

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11] 지명에 대한 구별은 후부지명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동일한 부분에 대한 구별 기능은 전부지명소가 담당한다.

산촌은 '山村'과 '散村'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산촌(山村)은 산간지역에 위치한 촌락으로 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산촌(散村)은 가옥의 밀집도가 낮고 산재하여 형성되는 촌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산촌(散村)은 가옥들이 집단을 이루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는 촌락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산거촌락(散居村落)이라고 한다. 이러한 산촌은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에 따른 대표적인 촌락 유형으로 전 국토의 43.5%를 차지하며,[12] 주로 산을 중심으로 타 공간이나 지역과 차별화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명의 분류 요소인 후부지명소보다는 성격 요소인 전부지명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부지명소에서 표현된 글자들이 지명의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지명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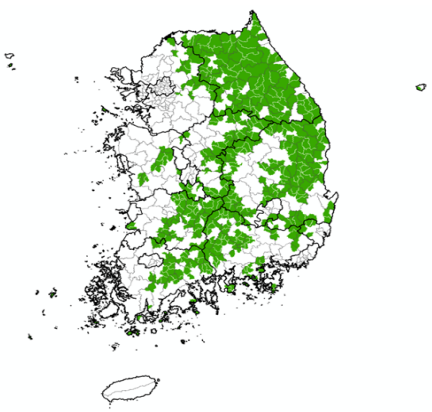
1. 연구대상

우리나라 산촌은 「산림기본법」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이고,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106명/km^2) 이하이며,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19.7%) 이하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산림청은 2014년 산촌기초조사에서 109개 시군, 466개 읍·면을 산촌으로 규정하였다(〈표 1〉 참조).

---

11) 김창환·이상원, 「전라남도 산 정보와 지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2권(제1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22, 443쪽.

12) 국립산림과학원, 「산촌가치재정립심포지엄 발표자료」, 2023, 84쪽.



〈그림 1〉 전국 산촌 분포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산촌가치재정립심포지엄 발표자료」, 2023, 84쪽.

〈표 1〉 행정구역별 산촌 현황(2014년 기준)

시·도별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시·군·구	1	1	1	7	15	9	8	10	17	23	17	109
읍·면	2	3	4	18	93	43	19	46	53	114	71	466

출처: 산림청, 『산림기본법에 의한 산촌 읍면 리스트』, 2017, 1쪽. 재구성

한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2018)은 지명을 행정지명, 자연지명, 해양지명, 인공지명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촌 지명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산림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산촌 행정지명인 466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2〉 참조).

〈표 2〉 산촌 읍·면 행정구역 현황

시도	읍·면	개수
대구광역시	유가읍, 가창면	2
인천광역시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3
울산광역시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4
경기도	조안면, 한산성면, 촌면, 창수면, 이동면, 화현면, 산북면, 신서면, 설악면, 상면, 조종면, 북면, 강하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18

〈표 2〉 산촌 읍·면 행정구역 현황 (계속)

시도	읍·면	개수
강원도	동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 소초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판부면, 신림면, 성산면, 왕산면,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연곡면,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영귀미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우천면, 안흥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 상동읍, 산솔면, 김삿갓면, 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정선읍, 고한읍, 신동읍, 남면, 북평면, 임계면, 화암면, 여량면, 갈말읍, 서면, 근남면,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서면, 현북면, 현남면	93
충청북도	낭성면, 미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노은면, 앙성면, 산척면, 소태면, 봉양읍, 금성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백운면, 송학면, 속리산면, 마로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안내면, 군서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백곡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매포읍,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단성면	43
충청남도	광덕면, 북면, 유구읍, 반포면, 정안면, 사곡면, 신풍면, 미산면, 성주면, 송악면, 벌곡면, 군북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 외산면, 내산면, 대치면, 정산면	19
전라북도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주천면, 산동면, 산내면, 금산면, 상관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진안읍, 용담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장수읍,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북면, 성수면, 신덕면, 강진면, 덕치면, 동계면,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변산면, 진서면, 위도면	46
전라남도	삼산면,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송광면, 외서면, 상사면 다도면,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다압면, 가사문학면, 대덕면, 용면, 월산면 오곡면, 석곡면, 죽곡면, 고달면, 오산면,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산동면, 봉래면, 영남면, 노동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한천면, 청풍면, 이양면, 도암면,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동면, 유치면, 대구면, 옴천면, 낙월면, 북하면, 군외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조도면, 흑산면	53
경상북도	장기면, 송라면, 죽장면, 기북면,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산내면, 봉산면, 대항면,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장천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신녕면,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북면, 외서면, 은척면, 화남면, 문경읍, 가은읍,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용성면, 남천면,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파천면, 진보면, 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114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축산면, 창수면, 각남면, 각북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 용암면,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효자면, 물야면, 봉성면, 춘양면, 소천면, 재산면, 명호면, 석포면, 북면, 근남면, 기성면, 온정면, 금강송면, 매화면, 서면	
경상남도	진북면, 진전면, 미천면, 명석면, 도산면, 사량면, 상동면, 산내면, 단장면, 무안면, 청도면, 동부면, 남부면, 원동면,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봉수면, 궁류면, 유곡면, 여항면, 고암면, 성산면, 삼산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개천면, 동해면,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화개면, 적량면, 횡천면, 청암면, 옥종면,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생비량면, 신등면, 마천면, 휴천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북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쌍책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용주면	71
전국 합계		466

출처: 산림청, 『산림기본법에 의한 산촌 읍면 리스트』, 2017, 1~4쪽. 재구성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지명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인문환경, 주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가진 단어 또는 글자로 명명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촌 지명에 나타나는 특성을 알아보고자 성격 요소인 전부지명소를 중심으로 지명을 분석하고, 대표 지역문화콘텐츠인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산촌 지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마을 형성과 지명 유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명어를 활용한 지명 유형의 분류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명연구방법론인 형태소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명형태소분석은 지명이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지명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명형태소 중 지명의 성격 요소인 전부지명소를 대상으로 전부 지명소의 표현된 글자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지명의 유래까지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명 유래에 대한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한국지명유래집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유형 분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선행연구들의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자연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지명을 분석한 김창환과

이상원(2022)의 산 지명 유형 분류기준과 임영태 외(2012)의 해안지명의 속성지명 기준을 참고하였다(〈표 3〉 참조).

〈표 3〉 지명 유형 분류 기준

구분	유형		지명소
자연지명	지형	산	山, 峰, 鷹, 德, 達, 丘, 岳, 臺, 台, 角, 梅, 項, 峴, 峙, 嶺, 燈, 窟, 臺, 嶽, 岩, 隅, 旨, 壇, 高原, 噴火口, 犀, 谷, 미, 메, 뫼, 재, 고개 등
		하천	川, 溪, 水, 井, 泉, 江, 池, 潭, 沼, 湖, 浦, 海, 島, 洲, 漁 등
		평야	平, 坪, 野, 伐, 夫里, 들 등
	지세		大, 德, 老, 馬, 頭, 仁, 乾, 黃, 漢, 咸, 太, 月, 鷄, 高, 鶴, 周, 牛, 屯, 黃, 獐, 廣, 屛, 碧, 花, 華, 串, 加, 葛, 斗, 小, 峨, 鵲, 飛鳳, 수리, 시루, 두루, 두리, 두류, 고지, 구지
	위치		東, 西, 南, 北, 前, 後, 內, 外, 上, 中, 下, 遠, 近, 邊, 陽, 陰, 一, 三, 七, 八, 九, 千, 萬, 갓, 건너, 너머, 가재
	동·식물		馬, 龍, 凰, 虎, 牛, 龜, 拘, 鹿, 鳥, 魚, 木, 草, 松, 竹, 蓮, 梅, 獅子, 芙蓉, 뱀, 부엉, 제비, 토끼
	지질		岩, 石, 乭, 巖, 庵, 바위, 돌
	기후		雲, 雪, 露, 雷, 風, 雨, 霧, 陽支
해안지명			端, 末, 峙, 岬, 角, 嘴, 琦, 尾, 頭, 丁, 坎
인문지명	염원	신앙	堂, 佛, 仙, 神, 天, 望, 聖, 道, 僧, 蓮, 靈, 日, 金剛, 毘盧, 觀音, 普賢, 문수, 미륵, 반야, 지장
		희망	甘, 儉, 劍, 金, 黑, 漆, 玄, 龜, 釜, 壽, 興, 道, 福, 望, 文, 論, 寶, 貴, 復, 聖, 修, 善, 喜, 白, 朴, 不, 光, 明, 赤, 朱, 足, 丹, 固麻, 久麻, 國守, 곰, 가마, 가모
		풍수	南, 安, 北, 祖, 宗, 造, 龍, 峨媚, 鳳凰, 文筆, 된, 조, 봉의, 청룡
	산업		林, 田, 墨, 茶, 金, 銅, 瓦, 鹽, 氷, 甕, 鼎, 관, 알, 감투, 국기, 깃대, 달걀, 맷돌, 물레, 바랑, 비녀, 비파, 삿갓, 숫돌, 장구, 차일, 철마, 촛대, 투구, 풋대, 향로, 고모레
	인물		胎, 玉女, 將軍, 兄弟, 國士, 君子, 大王, 각시, 장자, 백이
	주거		骨, 里, 垈, 基, 幕, 道藏, 고을(골), 마을(말), 실, 터, 거리
	시설물		城, 栢, 烽, 寺, 宮, 驛, 店, 点, 陣, 院, 橋, 道, 倉, 闕, 宮, 塔, 亭, 庭, 烽火
기타			傳說 등 확인 불가

출처: 임영태·최윤수·박경·윤하수, 「우리나라 해안 지명에 관한 기본 연구 – 해안 지명 명명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한국지도학회, 2012, 105쪽; 김창환·이상원, 「전라남도의 산 정보와 지명에 관한 연구」『한국사진지리학회지』, 한국사진지리학회. 2022. 117쪽

전부지명소에서 사용된 글자는 지명의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산촌의 지명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라 지명어 분석을 실시하여 분류기준을 추출하였다. 분류 기준은 선행연구들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자료에서 산촌과 관련성 있는 자연지리적과 인문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명명유연성이 자연지리적 특성과 관련성이 높은 지명들은 '자연지명'으로 분류하였다. 자연지명은 총 6가지로, 산, 하천, 평야, 해안과 같이 지형의 특성을 반영한 지명은 '지형지명', 마을의 입지를 반영한 지명은 '지세지명', 마을의 방위, 위치, 시기 등의 특성을 반영한 지명은 '위치지명', 동·식물을 특성을 반영한 지명은 '동·식물지명', 장소가 갖는 지질의 특성을 반영한 지명은 '지질지명', 기후와 관련성이 높은 지명은 '기후지명'으로 세분류하였다.

둘째, 명명유연성이 인문지리적 특성과 관련성이 높은 지명을 '인문지명'으로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신앙, 희망, 풍수와 같이 장소를 조성할 때 사람들이 간절히 생각하고 기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염원의 특성을 가진 지명은 '염원지명', 교통과 상업,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명은 '산업지명', 역사적 인물, 사람과 관련성이 높은 지명은 '인물지명', 마을의 주거 특성을 반영한 지명은 '주거지명', 마을 주변에 있던 역, 쉼터 등과 같은 시설물과 관련성이 높은 지명은 '시설물지명'으로 세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접미사 형태인 지명, 정형화 할 수 없는 지명, 확인 불가능한 지명은 모두 기타로 분류하여, 산촌 전부지명소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재구성하였다(〈표 4〉 참조).

〈표 4〉 산촌 지명 유형 분류 기준

구분	유형		지명소
자연 지명	지형	산	山, 德, 達, 岳, 角, 梅, 項, 峴, 峙, 嶺, 燈, 谷, 楊, 林, 陵, 龍, 華, 杆, 城, 蘇, 鳳, 松, 崗, 茶, 梧, 竹, 栗, 梨, 柳, 綠
		하천	川, 溪, 水, 井, 泉, 江, 潭, 湖, 浦,海, 島, 洲, 乃, 灘, 汗, 州, 皐, 澗, 淸 등
		평야	平, 坪, 野, 伐, 草, 林, 土, 蘆, 基, 田, 冶, 來
		해안	末, 角, 灘, 海, 島, 洲
	지세		大, 德, 老, 馬, 仁, 黃,漢, 月, 高, 鶴, 周, 黃, 廣, 花, 華, 加,葛, 斗, 小, 飛, 鳳, 慶
	위치		東, 西, 南, 北, 後, 內, 外, 上, 中, 下, 近, 邊, 陽, 一, 三, 七, 九, 鬐
	동·식물		馬, 龍, 虎, 鳥, 魚, 草, 松, 竹, 梅, 麒, 麟, 鳩, 鴨, 蓬, 萊, 杞, 蛇, 鵝
	지질		岩, 石
	기후		雲, 雪, 風
인문 지명	염원	신앙	神, 天, 聖, 道, 日, 伽, 禮
		희망	金, 黑, 龜, 釜, 壽, 興, 道, 福, 文, 論, 寶, 貴, 聖,修,善, 白, 光, 明, 赤, 朱, 丹
		풍수	南, 安, 北, 宗, 龍
	산업		田, 金, 銅 鏡, 銀, 品, 航
	인물		大王, 김삿갓, 孝子
	주거		里, 基, 村, 津, 縣
	시설물		城, 栢, 寺, 宮, 院, 道, 亭, 航
기타			傳說 등 확인 불가

출처: 임영태·최윤수·박경·윤하수, 「우리나라 해안 지명에 관한 기본 연구 - 해안 지명 명명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한국지도학회. 2012, 105쪽; 김창완·양준혁,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사라진 마을과 지명에 관한 연구」『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21, 146쪽; 김창환·이상원, 「전라남도의 산 정보와 지명에 관한 연구」『한국사진지리학회지』, 한국사진지리학회. 2022, 117쪽 재구성

IV. 연구 결과

1. 산촌 지명어 분석

전국 산촌 466개 읍·면 지명은 930개 한자와 1개의 순우리말(김삿갓)로 표기되어 총 931개로 나타났다(〈표 5〉 참고).

〈표 5〉 산촌 읍·면 지명어 현황

시·도	읍·면	지역	지명어
대구	瑜伽, 嘉昌	2	4
인천	大靑, 德積, 紫月	3	6
울산	斗東, 斗西, 上北, 三同	4	8
경기	烏安, 南漢山城, 內村, 蒼水, 二東, 花峴, 山北, 新西, 雪岳, 上, 朝宗, 北, 江下, 玉泉, 西宗, 丹月, 靑雲, 楊東	18	36
강원	東, 東山, 新東, 南, 西, 史北, 北山, 南山, 所草, 地正, 富論, 貴來, 板富, 神林, 城山, 旺山, 江東, 玉溪, 沙川, 連谷, 道溪, 遠德, 近德, 下長, 蘆谷, 未老, 佳谷, 新基, 化村, 斗村, 乃村, 瑞石, 詠歸美, 南, 西, 北方, 內, 隅川, 安興, 甲川, 晴日, 公根, 書院, 講林, 上東, 山率, 김삿갓, 北, 南, 韓半島, 酒泉, 武陵桃源, 平昌, 美灘, 芳林, 大和, 蓬坪, 龍坪, 珍富, 大關嶺, 旌善, 古汗, 新東, 南, 北坪, 臨溪, 畫岩, 餘糧, 葛末, 西, 近南, 華川, 看東, 下南, 上西, 史內, 楊口, 國土正中央, 東, 方山, 麟蹄, 南, 北, 麒麟, 瑞和, 上南, 杆城, 巨津, 縣內, 西, 土城, 縣北, 縣南	93	179
충북	琅城, 米院, 乷味, 水安堡, 老隱, 仰城, 山尺, 蘇台, 鳳陽, 錦城, 水山, 德山, 寒水, 白雲, 松鶴, 俗離山, 馬老, 懷仁, 內北, 山外, 安內, 郡西, 黃澗, 秋風嶺, 梅谷, 上村, 陽江, 龍化, 鶴山, 陽山, 栢谷, 長延, 延豊, 七星, 文光, 靑川, 梅浦, 大崗, 佳谷, 永春, 魚上川, 赤城, 丹城	43	90
충남	廣德, 北, 維鳩, 反浦, 正安, 寺谷, 新豊, 嵋山, 聖住, 松岳, 伐谷, 郡北, 南二, 珍山, 福壽, 外山, 內山, 大峙, 定山	19	37
전북	七寶, 山內, 山外, 朱川, 山東, 山內, 金山, 上關, 所陽, 九耳, 高山, 飛鳳, 雲州, 華山, 東上, 庚川, 鎭安, 龍潭, 銅鄕, 上田, 白雲, 聖壽, 富貴, 程川, 朱川, 茂豊, 雪川, 赤裳, 安城, 富南, 長水, 蟠岩, 長溪, 天川, 溪北, 聖壽, 新德, 江津, 德峙, 東界, 雙置, 福興, 龜林, 邊山, 鎭西, 蝟島	46	92
전남	三山, 昇州, 黃田, 月燈, 松光, 外西, 上沙, 茶道, 鳳崗, 玉龍, 玉谷, 津上, 多鴨, 歌辭文學, 大德, 龍,, 月山, 梧谷, 石谷, 竹谷, 古達, 梧山, 文尺, 艮田, 土旨, 山東, 蓬萊, 永南, 蘆東, 栗於, 福內, 文德, 寒泉, 淸豊, 梨陽, 道岩, 二西, 白鵝, 同福, 沙坪, 東, 有治, 大口, 唵川, 落月, 北下, 郡外, 所安, 金塘, 甫吉, 生日, 烏島, 黑山	53	106
경북	長鬐, 松羅, 竹長, 杞北, 文武大王, 陽南, 內南, 山內, 鳳山, 代項, 助馬, 龜城, 知禮, 釜項, 大德, 甑山, 一直, 南後, 南先, 吉安, 臨東, 禮安, 陶山, 綠轉, 長川, 順興, 丹山, 浮石, 新寧, 華北, 華南, 紫陽, 臨皐, 古鏡, 內西, 牟東, 牟西, 化北, 外西, 銀尺, 化南, 聞慶, 加恩, 虎溪, 山北, 東魯, 麻城, 籠岩, 龍城, 南川, 召保, 孝令, 缶溪, 友保, 山城, 三國遺事, 丹村, 點谷, 玉山, 舍谷, 春山, 佳音, 新平, 安平, 安寺, 靑松, 周王山, 府南, 縣東, 縣西, 安德, 巴川, 眞寶, 英陽, 立岩, 靑杞, 日月, 首比, 石保, 南亭, 達山, 知品, 丑山, 蒼水, 角南, 角北, 雲門, 錦川, 梅田, 德谷, 雲水, 雙林, 龍岩, 修倫, 伽泉, 金水, 枝川, 東明, 架山, 孝子, 物野, 鳳城, 春陽, 小川, 才山, 明湖, 石浦, 北, 近南, 箕城, 溫井, 金剛松, 梅花, 西	114	232
경남	鎭北, 鎭田, 美川, 鳴石, 道山, 蛇梁, 上東, 山內, 丹場, 武安, 淸道, 東部, 南部, 院東, 嘉禮, 七谷, 大義, 鳳樹, 宮柳, 柳谷, 艅航, 高岩, 城山, 三山, 上里, 大可, 永縣, 介川, 東海, 二東, 尙州, 三東, 赤良, 橫川, 靑岩, 玉宗, 山淸, 車黃, 梧釜, 生草, 今西, 三壯, 矢川, 生比良, 新等, 馬川, 休川, 安義, 西下, 西上, 栢田, 甁谷, 主尙, 熊陽, 高梯, 北上, 渭川, 南上, 南下, 神院, 加北, 妙山, 伽倻, 冶爐, 雙冊, 大陽, 雙栢, 三嘉, 佳會, 龍洲	71	141
전국 합계		466	931

출처: 저자 작성

산촌의 전부지명소 중 한 번 이상 사용된 지명어는 총 142개이며, 그 중 10개 이상 사용된 지명어는 〈표 6〉과 같이 총 295회로 분석되었다. 전국 산촌 지명의 전부지명소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지명어는 '山(산)'으로 54회(18.3%)였다. 이는 산촌 지역은 자연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산림을 배후로 마을이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음 순으로 '東(동)' 28회(9.5%), '南(남)' 28회(9.5%), '川(천)' 26회(8.8%)이었다. 산촌 지명어의 빈도가 높은 유형을 살펴보면, 자연 지명의 지형(산, 하천 등), 위치, 지세에 해당하는 지명어가 많았다. 인문지명은 풍수에 해당하는 지명어가 중복으로 나타났다. 풍수는 인문지명으로 분류되지만 전통적으로 풍수지리사상을 토대로 산과 물과 같은 장소

〈표 6〉 산촌 중복 지명어 분포(10개 이상)

순위	지명어	빈도(회)	비율(%)	분류
1	山 (산)	54	18.3	산
2(공동)	東 (동)	28	9.5	위치
2(공동)	南 (남)	28	9.5	위치, 풍수
4	川 (천)	26	8.8	하천
5	北 (북)	24	8.1	위치, 풍수
6	西 (서)	20	6.8	위치
7	谷 (곡)	18	6.1	산
8(공동)	城 (성)	17	5.8	산, 시설물
8(공동)	上 (상)	17	5.8	위치
10	安 (안)	15	5.1	풍수
11	內 (내)	14	4.7	위치
12	德 (덕)	12	4.1	산, 지세
13(공동)	大 (대)	11	3.7	지세
13(공동)	陽 (양)	11	3.7	위치
합계		295	100.0	

출처: 저자 작성

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리적 요소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산촌 지명어는 자연환경의 지형적 요소와 관련된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산촌 전부지명소 분석

선행연구를 통해 재구성한 〈표 4〉 산촌 지명 유형 분류 기준과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의 산촌 지명 유래를 토대로 전국 466개 산촌의 전부지명소를 분석한 결과, 산촌의 전부지명소는 자연지명 341개(73.2%), 인문지명 68개(14.6%), 기타 57개(12.2%)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7〉 전국 산촌 읍·면 전부지명소(중복 포함)

구분	유형		지명소	개수(%)
자연지명	지형	산	동산(東山), 북산(北山), 왕산(旺山), 연곡(連谷), 노곡(蘆谷), 가곡(佳谷), 강림(講林), 산솔(山率), 양구(楊口), 낭성(琅城), 산척(山尺), 소태(蘇台), 봉양(鳳陽), 금성(錦城), 수산(水山), 덕산(德山), 송학(松鶴), 매곡(梅谷), 용화(龍化), 학산(鶴山), 양산(陽山), 백곡(栢谷), 대강(大崗), 적성(赤城), 광덕(廣德), 사곡(寺谷), 미산(嵋山), 송악(松岳), 진산(珍山), 대치(大峙), 정산(定山), 산동(山東), 금산(金山), 고산(高山), 비봉(飛鳳), 화산(華山), 번암(蟠岩), 신덕(新德), 덕치(德峙), 구림(龜林), 변산(邊山), 월등(月燈), 송광(松光), 다도(茶道), 봉강(鳳崗), 옥룡(玉龍), 옥곡(玉谷), 오곡(梧谷), 죽곡(竹谷), 고달(古達), 오산(梧山), 산동(山東), 율어(栗於), 이양(梨陽), 도암(道岩), 봉산(鳳山), 대항(代項), 부항(釜項), 대덕(大德), 증산(甑山), 도산(陶山), 녹전(綠轉), 옥산(玉山), 사곡(舍谷), 춘산(春山), 청송(靑松), 안덕(安德), 달산(達山), 축산(丑山), 각남(角南), 각북(角北), 덕곡(德谷), 가산(架山), 봉성(鳳城), 재산(才山), 기성(箕城), 매화(梅花), 봉수(鳳樹), 유곡(柳谷), 고암(高岩), 성산(城山), 산청(山淸), 오부(梧釜), 병곡(甁谷), 묘산(妙山), 외산(外山), 내산(內山), 칠보(七寶), 영양(英陽), 칠곡(七谷), 덕적(德積), 방산(方山), 백운(白雲), 성수(聖壽), 부귀(富貴), 월산(月山), 백아(白鵝), 사천(沙川), 방림(芳林), 자양(紫陽), 은척(銀尺), 여항(艅航), 삼장(三壯), 산내(山內), 산외(山外), 산북(山北), 삼산(三山), 대관령(大關嶺), 속리산(俗離山), 주왕산(周王山), 추풍령(秋風嶺), 금강송(金剛松), 무릉도원(武陵桃源)	119(25.5)

〈표 7〉 전국 산촌 읍·면 전부지명소(중복 포함) (계속)

구분	유형		지명소	개수(%)
자연 지명	지형	하천	옥천(玉泉), 내촌(乃村), 우천(隅川), 갑천(甲川), 주천(酒泉), 미탄(美灘), 고한(古汗), 임계(臨溪), 화천(華川), 청천(靑川), 매포(梅浦), 반포(反浦), 경천(庚川), 용담(龍潭), 정천(程川), 설천(雪川), 장수(長水), 장계(長溪), 천천(天川), 승주(昇州), 한천(昇州), 청풍(淸豊), 옴천(唵川), 임고(臨皐), 파천(巴川), 금천(錦川), 금수(金水), 지천(枝川), 소천(小川), 온정(溫井), 미천(美川), 청도(淸道), 개천(介川), 상주(尙州), 횡천(橫川), 시천(矢川), 마천(馬川), 휴천(休川), 위천(渭川), 용주(龍洲), 강동(江東), 남천(南川), 장천(長川), 부계(缶溪), 살미(乷味), 어상천(魚上川), 수안보(水安堡), 창수(蒼水), 주천(朱川),	51(10.9)
		평야	평창(平昌), 봉평(蓬坪), 용평(龍坪), 벌곡(伐谷), 황전(黃田), 간전(艮田), 토지(土旨), 노동(蘆東), 사평(沙坪), 신평(新平), 매전(梅田), 물야(物野), 백전(栢田)	13(2.8)
		해안	한반도(韓半島), 갈말(葛末), 위도(蝟島), 동해(東海)	4(0.9)
	지형지명 소계			187(40.1)
	지세		자월(紫月), 화현(花峴), 단월(丹月), 원덕(遠德), 근덕(近德), 두촌(斗村), 노은(老隱), 마로(馬老), 회인(懷仁), 황간(黃澗), 대덕(大德), 문덕(文德), 대구(大口), 낙월(落月), 조마(助馬), 문경(聞慶), 가은(加恩), 일월(日月), 대의(大義), 대가(大可), 화개(花開), 가북(加北), 대양(大陽)	23(4.9)
	위치		두동(斗東), 두서(斗西), 상북(上北), 삼동(三同), 신서(新西), 강하(江下), 서종(西宗), 양동(楊東), 사북(史北), 북방(北方), 북평(北坪), 간동(看東), 하남(下南), 상서(上西), 사내(史內), 상남(上南), 현내(縣內), 내북(內北), 안내(安內), 군서(郡西), 군북(郡北), 상촌(上村), 양강(陽江), 남이(南二), 상관(上關), 소양(所陽), 구이(九耳), 동상(東上), 상전(上田), 부남(富南), 계북(溪北), 동계(東界), 진서(鎭西), 상사(上沙), 진상(津上), 영남(永南), 복내(福內), 이서(二西), 북하(北下), 군외(郡外), 기북(杞北), 양남(陽南), 내남(內南), 남후(南後), 남선(南先), 임동(臨東), 화북(華北), 화남(華南), 내서(內西), 모동(牟東), 모서(牟西), 화북(化北), 화남(化南), 동로(東魯), 부남(府南), 현동(縣東), 현서(縣西), 남정(南亭), 춘양(春陽), 진북(鎭北), 동부(東部), 남부(南部), 삼동(三東), 금서(今西), 서하(西下), 서상(西上), 웅양(熊陽), 북상(北上), 남상(南上), 남하(南下), 남산(南山), 하장(下長), 신동(新東), 상동(上東), 이동(二東), 외서(外西), 근남(近南), 내(內), 남(南), 서(西), 북(北), 동(東), 상(上)	103(22.1)
	동·식물		소초(所草), 인제(麟蹄), 기린(麒麟), 유구(維鳩), 다압(多鴨), 봉래(蓬萊), 조도(鳥島), 호계(虎溪), 사량(蛇梁), 생초(生草), 청기(靑杞), 용(龍)	12(2.6)

〈표 7〉 전국 산촌 읍·면 전부지명소(중복 포함) (계속)

구분	유형		지명소	개수(%)
자연지명	지질		화암(畫岩), 석곡(石谷), 부석(浮石), 농암(籠岩), 입암(立岩), 석보(石保), 석포(石浦), 명석(鳴石), 청암(靑岩), 칠성(七星)	10(2.1)
	기후		설악(雪岳), 청운(靑雲), 운주(雲州), 백운(白雲), 운문(雲門), 운수(雲水)	6(1.3)
자연지명 소계				341(73.2)
인문지명	염원	신앙	유가(瑜伽), 신림(神林), 성수(聖壽), 지례(知禮), 가천(伽泉), 도산(道山), 가야(伽倻)	7(1.5)
		희망	부론(富論), 귀래(貴來), 정선(旌善), 문광(文光), 단성(丹城), 성주(聖住), 복수(福壽), 적상(赤裳), 복흥(福興), 흑산(黑山), 구성(龜城), 단산(丹山), 단촌(丹村), 수륜(修倫), 적량(赤良), 단장(丹場)	16(3.4)
		풍수	조종(朝宗), 정안(正安), 진안(鎭安), 소안(所安), 길안(吉安), 예안(禮安), 안평(安平), 무안(武安), 안의(安義)	9(1.9)
	염원지명 소계			32(6.8)
	산업		동향(銅鄕), 금당(金塘), 지품(知品)	3(0.6)
	인물		김삿갓, 문무대왕(文武大王), 효자(孝子)	3(0.6)
	주거		내촌(內村), 신기(新基), 화촌(化村), 거진(巨津), 현북(縣北), 현남(縣南), 강진(江津), 상리(上里)	8(1.7)
	시설물		성산(城山), 도계(道溪), 서원(書院), 간성(杆城), 토성(土城), 미원(米院), 안성(安城), 송라(송羅), 마성(麻城), 용성(龍城), 산성(山城), 안사(安寺), 원동(院東), 궁류(宮柳), 쌍백(雙栢), 동명(東明), 한수(寒水), 대화(大和), 안흥(安興), 야로(冶爐), 진부(珍富), 남한산성(南漢山城)	22(4.7)
인문지명 소계				68(14.6)
기타			영귀미(詠歸美), 삼국유사(三國遺事), 생비량(生比良), 가사문학(歌辭文學), 가창(嘉昌), 대청(大靑), 조안(鳥安), 지정(地正), 판부(板富), 옥계(玉溪), 미로(未老), 서석(瑞石), 청일(晴日), 공근(公根), 여향(餘糧), 서화(瑞和), 앙성(仰城), 장연(長延), 연풍(延豊), 가곡(佳谷), 영춘(永春), 신풍(新豊), 무풍(茂豊), 쌍치(雙置), 문척(文尺), 동복(同福), 유치(有治), 보길(甫吉), 생일(生日), 죽장(竹長), 일직(一直), 순흥(順興), 신녕(新寧), 고경(古鏡), 소보(召保), 효령(孝令), 우보(友保), 점곡(點谷), 가음(佳音), 진보(眞寶), 수비(首比), 쌍림(雙林), 용암(龍岩), 명호(明湖), 진전(鎭田), 가례(嘉禮), 영현(永縣), 옥종(玉宗), 차황(車黃), 신등(新等), 주상(主尙), 고제(高梯), 신원(神院), 쌍책(雙冊), 삼가(三嘉), 가회(佳會), 장기(長鬐)	57(12.2)
기타지명(미분류) 소계				57(12.2)
합계				466(100.0)

출처: 저자 작성

(〈표 7〉 참조). 지명 유형을 세분류로 살펴보면, 자연지명의 '지형'이 187개(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치' 103개(22.1%), 인문지명의 '염원' 32개(6.8%), '시설물' 22개(4.7%) 순으로 나타났다. '지형' 중에서는 '산'에 해당하는 지역이 119개(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천' 51개(10.9%), '평야' 13개(2.8%), '해안' 4개(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촌 지명을 명명할 때 자연환경 중에서도 지형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문지명의 '염원' 중에서는 '희망'에 해당하는 지역이 16개(3.4%), '풍수'에 해당하는 지역이 9개(1.9%), '신앙'에 해당하는 지역이 7개(1.5%) 순으로 나타났다.

산촌의 동일한 지명은 〈표 8〉과 같이 총 52개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산촌 동일지명에서 지명어 한자의 음은 동일하나 뜻이 다른 지역 8개(삼동, 내촌, 주천, 사곡, 부담, 화북, 화남, 도산)는 제외하였다.

동일한 지명이 가장 많은 전부지명소는 '남(南)', '북(北)', '서(西)'였다. 이 3개의 지명은 서로 다른 5개 시·군에서 나타났으며, 모두 지명 유형 중 위치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위치지명 중 '남(南)'에 해당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5개 지역 모두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국토정보지리원 한국지명유래집에서 '남면'에 대한 각 지역의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시 남면은 시의 서남쪽에 위치한 면으로 본래 남산외면이라고 불렸으나 1934년 남면으로 개칭하였고, 정선군의 남면은 1906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남상면과 남하면을 합하며 남면이 되었다. 영월군과 인제군의 남면은 군의 남쪽에 위치하여 남면으로 지정하였다. 홍천군의 남면은 군의 남서쪽에 위치한 면으로 본래 구의산면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금물산면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후 금물산의 남쪽에 위치하여 지명으로 명명된 것이다.

위치지명 중 '북(北)'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영월군, 인제군,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다. 국토정보지리원 한국지명유래집에서 '북면'에 대한 각 지역의 지명 유래

를 살펴보면, 가평군 북면은 『해동지도』에 군의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적목산 부근에서 발원한 거림천이 북면의 북쪽을 지나며 남류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13] 영월군 북면은 단종이 복위되던 1698년에 영월군이 영월도호부로 승격되면서 영월의 북쪽에 있으므로 북면이라 명명하였다.[14] 인제군 북면은 면의 절반 이상이 설악산 국립공원의 내설악에 위치하며, 지명은 군의 북쪽에 위치하였다 하여 명명하였다.[15] 천안시 북면은 구의 동북쪽에 위치한 면으로 『해동지도』에 작성산 북쪽에 북면이 기재되어 있다.[16] 울진군 북면의 지명은 '읍치 먼 북쪽에 위치한 것'에서 유래하였다.[17]

위치지명 중 '서(西)'에 해당하는 경우, 4개 지역은 강원도에 위치하며, 1개의 지역만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하였다. 국토정보지리원 한국지명유래집에서 '서면'에 대한 각 지역의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춘천시 서면은 시의 서쪽에 위치한 면으로, 본래 기록에는 서상면과 서하면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1934년 지암리와 원평리를 사북면(史北面)에 이관한 후 서면으로 개칭하였다.[18] 홍천군 서면은 군의 서쪽에 위치한 면이다. 『여지도서』, 『광여도』, 『해동지도』, 『1872지방지도』에는 모두 감물악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서감물악면'이라는 명칭은 읍치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원래의 면 이름 앞에 접두사 '서'를 붙인 것으로 여겨진다.[19] 철원군 서면은 군 중서부에 위치한 면이다. 『조선지지자료』에 본래 김화군의 서면 지역으로 김화의 서쪽에 위치하여 명명된 지명이었으며, 1963년에 김화군이 철원군에 통합되면서 철원군 서면이 되었다.[20] 양양군 서면은

---

13)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2008, 457쪽.

14) 위의 책, 600쪽.

15) 위의 책, 685쪽.

16)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 충청편」, 2010, 349쪽.

17)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 경상편」, 2011, 500쪽.

18) 국토지리정보원, 앞의 책 488쪽.

19) 위의 책, 572쪽.

군의 서부에 위치하여 명명되었다.[21] 울릉군 서면은 1906년 남면과 북면을 분할하여 서면이 신설되었으며, 군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서면으로 명명되었다.[22]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동일한 지명은 지명 유형 중 지형(산)에 해당하는 '산내(山內)'로 총 4개의 서로 다른 시·군(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정보지리원 한국지명유래집에서 '산내면'에 대한 각 지역의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정읍시 산내면의 지명은 노령산맥 안쪽에 해당하는 곳이며, 동쪽으로는 성주산, 서쪽으로는 감투봉, 남쪽으로는 회문산, 종석산 등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 유래되었다.[23] 남원시 산내면은 지리산 안쪽이 위치하여 지명이 유래한 것으로 한국지명총람에 나타나있다.[24] 경주시 산내면은 형산강 유역에 자리 잡은 경주에서 바라보면 유역권이 다른 산 안쪽에 있다는 뜻으로 명명되어진 지명이다.[25] 밀양시 산내면은 1918년에 행정구역 명칭 개편에 따라 지금과 같이 산내면, 산외면이 되었으며, 동쪽과 북쪽에는 백운산과 운문산·구만산이 있고 남쪽에는 실혜산 그리고 서쪽으로는 용암봉이 있어 서남쪽을 제외하고 삼면이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26]

이와 같이 지명은 지역에 위치하는 지점 또는 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성을 가진 산, 나무를 기준으로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

20) 위의 책, 654쪽.

21) 위의 책, 705쪽.

22) 국토지리정보원, 앞의 책, 500쪽.

23)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 전라、제주편」, 2010, 184쪽.

24) 위의 책, 205쪽.

25) 국토지리정보원, 앞의 책, 224쪽.

26) 위의 책, 650쪽.

〈표 8〉 전국 산촌 읍·면 동일지명

구분	전부지명소	동일지명 시·군					개수
1	남(南)	강원 춘천시	강원 정선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홍천군	5
2	북(北)	경기 가평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충남 천안시	경북 울진군	5
3	서(西)	강원 춘천시	강원 홍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양군	경북 울릉군	5
4	산내(山內)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		4
5	동(東)	강원 춘천시	강원 양구군	전남 화순군			3
6	산북(山北)	경기 여주시	경북 문경시				2
7	창수(蒼水)	경기 포천시	경북 영덕군				2
8	이동(二東)	경기 포천시	경남 남해군				2
9	성산(城山)	강원 강릉시	경남 창녕군				2
10	가곡(佳谷)	강원 삼척시	충북 단양군				2
11	주천(朱川)	전북 남원시	전북 진안군				2
12	신동(新東)	강원 춘천시	강원 정선군				2
13	상동(上東)	강원 영월군	경남 김해시				2
14	근남(近南)	강원 철원군	경북 울진군				2
15	백운(白雲)	충북 제천시	전북 진안군				2
16	산외(山外)	충북 보은군	전북 정읍시				2
17	성수(聖壽)	전북 진안군	전북 임실군				2
18	삼산(三山)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				2
19	대덕(大德)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2
20	외서(外西)	전남 순천시	경북 상주시				2
합계							52

출처: 저자 작성

시·도별 산촌의 전부지명소를 분석한 결과, 경북 114개, 강원 93개로 경남 71개로 경북이 가장 많았으며, '자연지명'과 관련된 지역 역시 경북이 79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 65개, 경남 47개로 나타났다. 자연지명 중 '산'과 관련된 지명은 경북 29개, 충북 19개, 전남 17개 순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전국 산촌의 시도별 전부지명소는 자연지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도별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는 지명 유형을 살펴보면(〈표 9〉 참

조), 강원은 '위치'와 관련된 지명이 3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산' 14개, '하천' 9개로 나타났다. 충북은 '산'과 관련된 지명이 1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하천'과 '위치'가 동일하게 5개로 나타났다. 충남은 '산'과 관련된 지명이 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위치'가 3개로 나타났다. 전북은 '산'과 관련된 지명이 16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하천'과 '위치'가 동일하게 5개로 나타났다. 전남은 '산'과 관련된 지명이 1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위치' 9개, '해안'이 5개로 나타났다. 경북은 '산'과 관련된 지명이 29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위치' 23개, '하천' 11개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경남은 '산'과 '위치'가 동일하게 13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세'가 3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산촌의 전부지명소를 살펴본 결과는 촌락을 형성하는데 지형(산, 하천)과 위치와 관련한 사항들이 입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중에서도 산촌의 지명은 '산'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표 9〉 시·도별 산촌 전부지명소 현황

지역	자연지명										인문지명								기타	계
	지형				지세	위치	동식물	지질	기후	계	염원			산업	인물	주거	시설물	계		
	산	하천	해안	평야							신앙	희망	풍수							
대구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1	2
인천	1	0	0	0	1	0	0	0	0	2	0	0	0	0	0	0	0	0	1	3
울산	0	0	0	0	0	4	0	0	0	4	0	0	0	0	0	0	0	0	0	4
경기	1	2	0	0	2	7	0	0	2	14	0	0	1	0	0	1	1	3	1	18
강원	14	9	3	2	3	30	3	1	0	65	1	3	0	0	1	5	8	18	10	93
충북	19	5	0	0	4	5	0	1	0	34	0	2	0	0	0	0	2	4	5	43
충남	9	1	1	0	0	3	1	0	0	15	0	2	1	0	0	0	0	3	1	19
전북	16	9	0	1	0	9	0	0	2	37	1	2	1	1	0	1	1	7	2	46
전남	17	4	5	0	4	9	4	1	0	44	0	1	1	1	0	0	0	3	6	53
경북	29	11	3	0	4	23	2	5	2	79	2	4	3	1	2	0	6	18	17	114
경남	13	10	1	1	5	13	2	2	0	47	2	2	2	0	0	1	4	11	13	71
계	119	51	13	4	23	103	12	10	6	341	7	16	9	3	3	8	22	68	57	466

출처: 저자 작성

3. 산촌 지명과 문화콘텐츠 연계분석

지역의 문화콘텐츠는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포괄하고 고유의 문화·역사적 자원을 반영해야 하므로,[27] 대표적인 지역 문화콘텐츠인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산촌 지명과 문화콘텐츠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산촌 지명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살펴본 결과, 총 43개의 지역축제가 존재했으며, 지역별로 전북 7개, 경북 7개, 경남 7개이 가장 많았고, 충북 5개, 충남 5개, 전남 5개, 강원 4개, 경기 3개 순이었다(〈표 10〉 참조).

〈표 10〉 산촌의 지역축제 현황

시도	산촌 전부지명소	지역축제	총계
경기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 문화제	3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운악산 단풍 축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양평 물빛 축제	
강원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호수길 축제	4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 문화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메밀꽃 축제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	
충북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천등산 고구마 축제	5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 신화여행 축제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도마령 산촌문화축제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 감골단풍축제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도락산 신선마을 축제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벚꽃축제	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신록축제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 단풍축제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비단고을 산꽃축제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	

27) 장건용, 「지역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방안 연구=장소마케팅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445쪽.

〈표 10〉 산촌의 지역축제 현황 (계속)

시도	산촌 전부지명소	지역축제	총계
전북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산 축제	7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운장산 고로쇠 축제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금강 다슬기 축제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달집 축제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추령 장승축제	
		내장산 단풍축제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띠뱃놀이 (풍어기원제)	
전남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천년 동백 축제	5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매화 축제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추월산 벚꽃축제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안동 암산 얼음축제	7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보현산 별빛축제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백화산 진산제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성주봉 자연휴양림 단풍축제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솔밭축제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의성산 수유꽃 축제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사과 축제	
경남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 사과축제	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 벚꽃축제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 철쭉제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꽃잔디 축제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백운산 벚꽃축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 얼음축제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 철쭉제	
합계			43

출처: 저자 작성

이중 산촌 지명과 관계된 지역축제는 14개였으며, 지명과 관련되지 않은 지역축제는 29개로 나타났다. 특히, 산촌 지명과 관계가 있고 산림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는 충남 공주시 사곡면의 '마곡사 신록축제' 1개 뿐이었다. 반면 지명과 관계는 없지만 산림문화자원과 연계된 지역축제는 전북 진안군 주천면의 '운장산 고로쇠 축제', 전북 순창군 복흥면의 '추령 장승축제', 경북 상주시 모동면의 '백화산 진산제' 3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명과 관계는 있으나 산림문화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지역축제는 13개였으며, 산촌 지명과도 관계되지 않고 산촌문화자원을 활용하지도 않은 지역축제는 26개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지명과 문화콘텐츠 연계성

구분	산촌문화와 연계 有	산촌문화와 연계 無	총계
지명과의 관계 有	1	13	14
지명과의 관계 無	3	26	29
총계	4(9.3)	39(90.7)	43(100.0)

출처: 저자 작성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토의 공간을 구성하고 그 지역 고유 문화와 가치를 담고 있는 지명을 통해 전국 산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66개 산촌 지명의 전부지명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산촌 지명의 지명어는 930개 한자와 1개의 순우리말(김삿갓)로 표기되어 총 931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산촌의 전부지명소 중 한 번 이상 사용된 지명어는 총 142개이며, '山(산)'이 54회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산촌 지역에서 자연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산림을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산촌 지명은 자연지명이 341개로 전체의 73.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연지명 중 가장 많은 지역이 포함된 유형은 지형지명 187개(40.1%)이며, 지형 중에서는 산에 해당하는 지역이 119개(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위치지명이 103개(22.1%)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산촌 지명을 명명할 때 자연환경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촌락을 형성하는데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지형과 위치에 관련한 사항들이 입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지역이 위치하는 지점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성을 가진 산, 나무를 기준으로 지명이 형성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산촌 지명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읍·면이 후부지명소인 형태의 행정지명을 따르고 있다. 산촌에서 중복으로 사용된 동일지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南)', '북(北)', '서(西)' 3개의 지명이 서로 다른 5개 시、군에서 나타났으며, 모두 지명 유형 중 위치에 해당하는 지명이었다. 산촌 지명에서 위치지명이 많이 나타난 것은 분석 단위가 행정지명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치지명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된 지명을 살펴보면 4개의 지역에서 나타난 '산내(山內)'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인 '산속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와 연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산촌 지명의 14.6%는 인문지명(68개)이었다. 인문지명에서는 염원지명이 32개(6.8%)로 가장 많았고, 그중 희망에 해당하는 지역이 16개(3.4%), 풍수에 해당하는 지역이 9개(1.9%), 신앙에 해당하는 지역이 7개(1.5%)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풍수, 신앙은 장소를 조성할 때 사람들이 간절히 생각하고 기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염원의 특성이며, 산촌의 인문지명들은 산과 관련된 자연지리적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이처럼 지명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지명에는 자연지리적, 인문지리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명명되어진다. 농촌이라는 촌락을 형성하는 입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연지리적 요인이었다. 경사도가 완만할수록 촌락의 기반이 되는 농경지 조

성이 용이했으며, 식수원 해결을 위해 소하천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왔다.[28] 반면 어촌은 해안을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배산임해(背山臨海)의 형태로 입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29] 이처럼 농촌과 어촌의 촌락형성의 입지조건은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촌은 주로 산을 중심으로, 산 속에서 타 공간이나 지역과 차별화된 입지적 특성 갖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 지명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창완과 양준혁(2021)의 연구에서 제시한 지명이 인간에 의한 환경지각의 소산으로 장소성과 지역성의 언어라는 결과를 반증한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촌 지명과 향토문화축제, 스토리텔링 등 산림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국 산촌을 대상으로 지명과 문화콘텐츠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산촌은 90.7%가 지역 축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명과 산림문화콘텐츠를 연계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산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고유 자원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 분석 결과, 산촌 지명은 산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산촌 고유의 정체성을 특화하고자 할 때, 지명과 지명의 문화콘텐츠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산림문화는 과거, 현재, 전통 그리고 현대가 공존하며 가치가 시대적으로 변화해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국 산촌의 지명을 통해 그 변천 과정에 대한 역사와 문화,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전국 산촌을 대상으로 지명의 특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전국 산촌을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고 있기에 행정지명을 토대로 그 특성을 분석하였기에 한계가 있다. 산촌 지명이 가지는 고유성과 유연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

28) 오남현, 「산지촌의 형성과정과 공간특성 변화 :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8권(제3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2, 350쪽.

29) 손용택, 「전통 어촌의 풍수경관: 보성군 득량면 강골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61권(제3호), 한국사회교육연구학회, 2022, 169쪽.

서는 읍·면의 지명보다는 행정리에 속한 마을단위의 지명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산촌의 마을단위 지명에 대한 심층 연구가 진행된다면 산촌이 어떠한 자연지리적 특성과 대상 및 범위를 가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현장 실증적인 입지특성 분석에 따른 산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곽재용, 「하동군의 지리산 관련 지명 연구」, 『地名學』 제26권, 한국지명학회, 2017.

김순배·김영훈,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제2호), 대한지리학회, 2010.

김정태, 「지명 형성의 한 유형에 대하여」, 『地名學』 제26권, 한국지명학회, 2017.

김창환·양준혁,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사라진 마을과 지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1권(제1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21.

김창환·양준혁, 「북강원도의 지명에 관한 연구 –행정도·리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3권(제2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23.

김창환, 「국가기본도의 산 지명에 관한 연구: 강원도를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제10권(제3호), 한국지리학회, 2001.

김창환·이상원, 「전라남도 산 정보와 지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2권(제1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22.

민경택, 「산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조사」, 『산림경제연구』 제24권(제1호), 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오남현, 「산지촌의 형성과정과 공간특성 변화 :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8권(제3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2.

이상원, 「한국의 산 정보와 지명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임영태·최윤수·박경·윤하수, 「우리나라 해안 지명에 관한 기본 연구 – 해안 지명 명명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지도학회지』 제12권(1호), 한국지도학회, 2012.

임재해, 「설화의 미디어 기능과 지명전설의 인문지리 정보」, 『韓民族語文學』 제69권, 한민족어문학회, 2014.

임종옥, 「남해군 자연마을 지명 유래와 그 분포의 특성」,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손용택, 「전통 어촌의 풍수경관: 보성군 득량면 강골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61권(제3호), 한국사회교육연구학회, 2022.
정건용, 「지역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방안 연구=장소마케팅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8권(제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천소영, 「지명연구에 쓰이는 술어에 대하여」, 『地名學』 제2권, 한국지명학회, 2001.
국립산림과학원, 「산촌가치재정립심포지엄 발표자료」, 2023.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표준화 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2005.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2008.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2009.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편」, 2010.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경상편」, 2011.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표준화 편람 제3판」, 2018.
산림청, 「산림기본법에 의한 산촌 읍면 리스트」, 20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2008.

〈ABSTRACT〉

Study on the Mountain Villages Nationwide Place Names

Kim, Ju Mi · Min, Jee-Ae · Chang, Chuyoun · Yoo, Rhee-Hwa

As the interest in the multifaceted value of mountain villages increases,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their natu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scenic, cultural, and ecological value. Mountain villages, mainly centered around mountains, have distinctive locational features that differentiate them from other spaces or region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ountain villages through their place names. Through the analysis of mountain village toponyms, a classification criterion was established to categorize them into natural toponyms, cultural toponyms, and others. The study examined all toponyms associated with mountain villages, focusing on their correlation with a representative regional cultural content, local festival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out of the 466 towns and townships designated as mountain villages nationwide, 341 toponyms (73.2%) were associated with natural environments, with mountain-related toponyms being the most prevalent at 119 (25.5%), followed by location-based toponyms at 103 (22.1%). Cultural toponyms constituted 68 (14.6%) of the total. The cultural toponyms in mountain villages exhibited a characteristic combination of natural geographical elements associated with mountains. Examining cultural content utilizing mountain village toponyms revealed a total of 43 local festivals, among which 14 were associated with mountain village toponyms. The use of mountain

village toponyms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areas. Therefore, when enhancing the unique identity of mountain villages, active utilization of toponyms and their cultural content is recommended.

Key Words : Mountain villages, Place name, Forest culture, The front morphemes of place names, The natural place names, The administrative area names